

전남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한눈에

버스킹·日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음악회 등 결과물

내달 4일까지 道교육청 1층 갤러리이음서 전시회

K-POP 버스킹, 유명 건축물 탐방,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추모 음악회 등 전남 학생들이 해외 곳곳에서 펼친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한자리에 선보인다.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23일 "오는 10월 4일까지 道교육청 1층 갤러리 이음에서 '2024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국외팀의 활동 결과물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이하 청미프)는 학생 스스로 도전 주제를 정하고 팀을 꾸려 실행해 가는 학생 중심 교육 활동 프로그램이다. 청미프의 국외 활동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세상을 향해 마음껏 도전해'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2023년 청미프 활동팀 중 우수

팀으로 선정된 총 11팀(중등 3개, 고등 7개, 학교 밖 1개)의 국외 활동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

광양제철고 활동팀 '가우디'는 마리나베이 샌즈, 아트사이언스뮤지엄 등 싱가포르의 유명 건축물 현장을 탐방했고, 함평학다리고 활동팀 'ESC'는 오키나와 해양 생태계 특성을 조사했다.

목포영하중, 순천금당중, 목포마리아하고 활동팀은 K-POP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공연 및 댄스 퍼포먼스를 펼쳤다.

학교 밖 청소년 활동팀인 지오학교의 '노스텔지어'는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추모음악회를 개최하고 티니안 내 강제동원 한국 후손을 찾는 데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영암 삼호고등학교 학생들도 일본에서 일제



학교 밖 청소년 활동팀인 지오학교 '노스텔지어'의 학생들이 태평양 전쟁에 동원돼 희생된 한국인 추모탑 앞에서 참배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참상을 취재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미프 활동

지원을 통해 전남의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GIST, 지역인재 5명에 '정원장학재단' 장학금 수여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2일 "김용만 학교법인 청송학원(광주 승덕고등학교) 이사장이 (재)정원장학복지재단을 통해 기탁한 장학금으로 '제1회 정원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원장학금은 광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성적이 뛰어난 GIST 학생을 매년 5명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이다.

수여식은 행정동 5층 총장실에서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과 (재)정원장학복지재단 관계자, 선발된 장학

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용만 정원장학복지재단 이사장은 "지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독려하고 더 큰 인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며 "GIST 학생뿐 아니라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꿈을 이뤄 나가는 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기철 총장은 "GIST 학생들이 이사장의 뜻을 헤아려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이끄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다이 기자



재경남호남향우회,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

재경남호남향우회가 22일 전남도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병철 재경남호남향우회 회장, 최권식 김해향우회장, 김용상 창원향우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병철 회장은 기탁식에서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금사업 선정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소식을 들었다"며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모집과 365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국립의과대학 유치 등 도정 현안에 재경남호남향우회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출향인이 나눔 기부를 실천해 든든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이 잘 쓰이도록 신중하게 기금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은둔형외톨이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주 북구 소재 광주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를 방문, '희망키트'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희망키트는 건강보험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원들이 직접 은둔형외톨이 청년의 일상회복을 응원하는 편지를 쓰고 영양제, 영양식품, 취미활동, 운동도구, 자기계발서 등 맞춤형 물품으로 제작했다.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는 물품 전달 후 센터 실무자들과 함께 은둔형외톨이 청년이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고, 복지 상담 및 케어 프로그램 등 센터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은

둔형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은둔형외톨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윤정욱 본부장은 "홀로 어두운 시간을 견뎌야 했던 은둔형외톨이 청년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은둔형외톨이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수희 기자



호남·제주 평생교육진흥원 협상호 고향사랑기부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2일 "호남·제주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지역 상생발전 일환으로 최근 광주·전북·제주 평생교육진흥원과 상호 고향사랑기부금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광주·전북·전남·제주 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은 사회복지법인인 목

포 공생원에 기증됐다.

공생원 관계자는 "기증받은 답례품은 생활 아동들에게 따뜻한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범희승 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가 호남·제주지역 상생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해남경찰, 치안성과관리 전략보고회 개최

해남경찰서는 "최근 안형주 서장과 각 과장, 계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치안성과관리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회는 올해 주요 추진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가능별 성과 달성도를 평가·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분석해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형주 해남경찰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효과적인 치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학부모 챗-GPT 활용 교육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은 "최근 재단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스마트한 학부모를 위한 챗-GPT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은 챗-GPT와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 자녀의 학습을 돕고,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다뤘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기술을 통해 자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고 열린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다.

재단은 앞으로도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과 도



민 모두가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미란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은 "이번 교육이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가정에서 자녀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강성남 담양문화원장 '남명문학상' 수상



강성남(75·사진) 담양문화원장이 전국 남명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새김해 담양정신문화연구원 남명문화회와 김해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한 남명문화예술제 제5회 전국 남명문학상 공모전에서 담양문화원장인 강성남 시인의 '남명매가 시'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남명문학상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 남명 조식(1501-1572) 선생의 사상을 바탕으로 남명선생의 경의사상과 실천 인문학을 계승·발전시키고자 2019년부터 남명전신문화예술제와 함께 전국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소설·시 등 7개 부문에서 매년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강 시인은 2003년 아동문학상에 동시로 등단한 후 현대수필, 시조시학, 시꽃피다 문예지에 수필, 시조, 시 등을 집필하며 현재까지 활발한 문학활동을 하고 있다.

한중 아동문학상을 비롯한 정소파문학상, 월간문학상, 호남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시집 '그리운 사람들', 동시집 '하얀미소', 동요집 '새싹', 시조집 '흑백사진' 등이 있다.

한편 남명문학상 시상식은 10월 중순에 열리는 남명문화예술제 행사에서 수여된다.

/담양=정승균 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등굣길 우리쌀 빵 나눔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는 "최근 전남조리과 학교등학교 정문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페인은 방현용 농협 곡성군지부장, 홍성수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곡성경찰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조리과학교 학생과 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쌀로 만든 빵을 나눠주며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담배·알코올·학교폭력 없는 그린학교 만들기 등 품을 당부했다.

방현용 곡성군지부장은 "지역 쌀을 이용해 전통주와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를 지속 발굴하고, 곡성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는 우리 쌀로 디저트를 만드는 오픈마켓 카페 '단편'과 곡성쌀 소비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쌀 소비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쌀 디저트 구입 고객에게 곡성 친환경쌀 500g 증정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곡성=김영필 기자



광주교통공사, 경로당서 재능 나눔 봉사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 서구 금오2동 소재 경로당을 찾아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공사 임직원 10여명과 심철의 광주시의원, 안형주 광주 서구의원 등은 경로당의 낡은 전기 배선을 교체하고, 오래된 전기 스위치의 전열 콘센트를 새롭게 바꾸는 한편, 싱크대와 장판을 리폼·교체하고 문을 새로 도색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기술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취약계층 시설 방문 봉사 및 사회공헌 성금 전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익문 공사 사장은 "재능나눔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게 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살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수희 기자